

**금주일언** 거짓을 말하면 지옥에 가까워진다. 거짓말하고도 하지 않았다 하면 그 뒤에 두 가지 죄 함께 받으니 그 행에 스스로 끌려 간다.  
(법구경·지옥품 1절)

# 東大新聞

본지 발행인: 김주일  
편집장: 김주일  
주간: 김주일  
인쇄: 김주일  
송신: 김주일  
석판: 김주일  
구입: 김주일  
구입: 김주일

매년 10월 10일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260-3492)  
FAX(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770-2057)

제 1188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5년(불기 2539년) 11월 13일 (월요일) 11

## 총학생회 선거 “분위기 안뜬다”

### 학생들 호응 저조한 가운데 유세·공청회 열려

제28대 총학생회 2·3차 선거유세가 지난 7일 동국대 5층로비와 9일 관해관에서 각각 치러졌다.

총학생회에 입후보한 서정은(약교3)·조윤숙(국민윤리2) 조는 “이전의 총학생회는 그 뿌리가 약했다”며 “동약의 여성이 먼저 인식하고 총여를 다함께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부의 연대를 통해 여성세력의 강화”를 내세웠다.

총학생회 입후보자인 유병문(불교3)·황인구(아간영문3) 조는 5·18학살자 처벌과 특검제 도입을 주장하고 “동약의 현실을 인식하고 근원을 알아야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유영하(산공4)·김보현(사자3) 조는 “가장 소중하지만 가장 소외된 나”를 기점으로 내걸고 “배우이 중심되는 학풍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학생들에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학생회는 중간경영자로서의 위치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동민(물리4)·박창민(기계공4) 조는 “동약 곳곳에 만연해 있는 관성”과 “무능을 탈피해야 한다”며 “대안을 가진 비판을 통해 학우들과 함께하는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1시 중앙당에서 있었던 후보자 공청회는 60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치러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각인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자들의 질의, 응답의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참석한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함께 이뤄졌다.

이후 선거일정은 오늘(13) 1시 중

## 11월 정기노사협의회 진행 사무기능직제도 개선 등 합의

지난 11월 9일 정기노사협의회가 수위·경비직 근무제 개선, 사무직 기능직 인사제도 개선 등을 안건으로 열렸다.

스명예퇴직 수당 개선, 단일반기 숙직 91년후 일사자 군호봉정리 스명예퇴직 개선, 스조직개편에 따른 인력배치 등이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서울·경주노조위원과 부총장 등 학교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되었다.

수위·경비직 근무제 개선 방안은 현재의 하루교대근무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하고, 개인시간이 없는 등 시행에 많은 무리가 있어 근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협의에서 3교대 근무체제로의 전환을(주간은 학교직원, 야간은 용역직원이 대체) 합의하였다. 이밖에 논의된 것은 과도기적 단계로 근무지별 2~3교대로 시행하기로 했고, 근로조건은 격주휴무 실시, 휴일(일요일만) 2교대 근무, 대기근무자 운영을 한다.

근무시간과 임금은 이번 개선방안과는 별도로 보충협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양도서관앞에서 4차유세가 있고 15·16일 3일간에 걸쳐 투표가 실시된다.

환자격을 근속 10년이상자, 시행기간내(2년전까지) 10년근속 미달자에게는 적절한 시기에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전환평가 기준은 근속년수(20%), 시험(20%), 학력(5%), 인사위원회(15%), 심사위원회(15%), 인사교과(25%) 등 6항목의 총점 합산으로 학교가 정한 점원내에서 순위별로 전환하게 된다.

전환인원 및 정원은 서울·경주·통영운영팀 예정이지만 그 세부 사항까지 합의된 바 없다. 학교측은 전환인원 및 정원을 인력계획 수립후 결정할 방침이고 노조측은 연도별 정원설정, 사무기능직 T/O를 전환직급(일반직 9급) T/O로 조정을 요구했다.

이번 사무기능직 인사제도 개선에 따른 임금 및 호봉은 16일 임금교섭에서 다시 협의된다.

그외에 인력배치는 노조측이 채용시기를 학기가 시작되는 3월보다 빨리 채용해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고, 명예 퇴직 수당에 대해서 한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현재보다 상향 조정될 것”이라 밝혔다.

## 근거리 통신망 구축 계약

### 정보교류등 성과 기대

본교는 지난 30일 쌍용정보통신과 LAN(근거리 통신망) 구축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LAN구축계약은 100Mbps를 지원하는 광섬유방식을 적용하며 전자계산소가 있는 해화관을 중심으로 본관, 도서관 등 각 단위를 연결한 뒤, 경주캠퍼스 전산망과 고

속전용선으로 연계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는 15일 시작되어 내년 2월 초 완공되는 LAN구축을 통해 외부전산망과의 접속이 원활해짐에 따라 국내·외간 학술정보교류와 학부생의 수업활동에 커다란 변화와 성과가 기대된다.

## 도서관 자동화시스템 설치예정

### 도서확인 어디서나 가능

도서관(관장=정병조·국민윤리)은 지난 7일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명회 및 시범을 가졌다.

교양정보시스템과 삼보정보시스템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설명회는 기존의 전산화 방식에 여러가지 기능이 보완된 자동화 시스템과 각 회사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도서관에 직접 가서 도서확인을 하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앞으로는 PC나 LAN망을 통해 어디서나 도서확인이 가능하며, 도서구입이나 자료 정리등의 처리속도도 두배이상 빨라진다.

내년 3월경 시범사용이 가능한 이번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열람과 인방부서장은 “기존의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대개적으로 바뀔 것이며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기능이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외국어교육원, 동국관 이전

### 시설확충...교육향상 기대

현재 교수회관 2층에 자리잡고 있는 외국어 교육원(원장=김정태·영문영학)이 오는 96년 동국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외국어교육원측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각 80명씩을 수용할 수 있는 A, B 2개의 LAB강의실을 대략 한 학과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60석의 강의실 4개로 확대하여 더욱 효율적인 교과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금 현재 66석의 시청각실을 44석에 늘어난 1백석으로 증원하고 15대의 VCR시설을 30대로 확충하여 그동안 LAB과 Listen & View에 각각 1시간씩 할애되어 있는 2시간의 강의를 4시간으로 확대해 2시간은 올해 중 8명의 외국

어 전문강사를 선발해 회화에 약한 재학생들에게 외국어 직접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국어 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외국어교육원이 교육 수준을 향상과 체계화, 일반인 강좌 개설의 확대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만일 일반인 강좌가 개설될 경우 학교 홍보와 충분한 예산확보, 그리고 그 예산의 재확보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앞으로 재학생들에게 수강료 혜택뿐 아니라 질 높은 외국어 교육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동국관 이전에 대한 이점을 밝혔다.

## 교수동정

▲유승룡(건축공학) = 한국콘크리트학회 가을학술발표회에 ‘제3분과: 조기강도, 내구성, 비파괴검사, 좌장’ 발표자 지난 4일 서울산업대 방문.

▲박문규(기계공학) = 대한조선학회 95년도 추계학술행사에 ‘1. 신경망을 이용한 자동조각장치의 제어 시스템 설계연구, 2. 부분구조 합성법에 의한 선박의 동력운동해석’ 발표자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대전충남대 방문.

▲이상주(식품공학) = 한국식품공학회 1995년 학술대회에 ‘무기반죽 공정의 Scale-up에 반죽에너지가 미치는 영향’ 발표자 지난 4일 서울여대 방문.

▲허정식(정보산업학) = 지난 4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영남경영정보학회’에 참석후 영남경영정보학회 회장으로 선출됨.

▲양창현(의학) = ‘제4차 국제 소화기학회’ 참석차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상하이 방문.

표차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대전충남대 방문.

▲이상주(식품공학) = 한국식품공학회 1995년 학술대회에 ‘무기반죽 공정의 Scale-up에 반죽에너지가 미치는 영향’ 발표자 지난 4일 서울여대 방문.

▲허정식(정보산업학) = 지난 4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영남경영정보학회’에 참석후 영남경영정보학회 회장으로 선출됨.

▲양창현(의학) = ‘제4차 국제 소화기학회’ 참석차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상하이 방문.

## 보리수

### 선기(善氣)

‘홍보가 기가 막혀’란 노래가 젊은층이나 노인층을 막론하고 지금 유행이다. 홍보는 본래부터 기가 막혀 있는 상태가 많다. 늘부형이 땀땀거리고 사는 것에 비하여 보잘것 없는 세간살이, 양식당, 이 모퉁이가 기가 막힌 심장이라 도시 살맛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임구령이 포도청이라 어떻게 해서라도 아침을 때워야 한다. 율령출판 자식들, 구름출판 지붕, 바람이 세어드는 벽돌 이 모두가 구차하고 게으른 살림이다. 우리는 홍보의 가난 때문에 기가 막힌 것이 아니라 민족정체가 총격중후군에 걸려 있기에 기가 막힌다. 세계 어느 나라 통치자가 통치자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설명 그 통치자금이 조성이었다면 민주화 자유화하는데 그 돈이 민주적 공개방식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인데, 아니 비자국이라는 악명을 덮으려 하고 또한 투기, 사채, 해외도피 등으로 사용하였나 민족정체가 총격중후군에 걸리는 기가 막힌 사실이 아닌가 그런데 이러한 중후군이 얼마 있으면 광각중후군으로 전환될 기미까지 보이나 신흥 경제동지들 병기(病氣)가 아닌가.

차자의(病氣)가 아니라 가난히 넘쳐 나야하고 통령자의 자비가 온 백성에 따뜻하게 흘러야

하는데 우리네의 대통령들은 모두가 불명예, 부도덕, 몰염치의 성격을 고루 갖추어 있으니, 우리나라 국민이 박복한 인과인가, 우리 백성은 옛부터 광명이 세하고 홍익인간하는 계명을 알뜰히 받아들이어 살아온 것인데 광복 50년이 다. 언제가는 ‘밀어주세요’를 상용어로 사용하던 보통사람이 상식 이하의 수준으로 하강하여 국민을 물론하고 있고 있으니 무엇이 정의이고 어떤 것이 진리인가. ‘밀어주세요’라고 앞으로 진리를, 정의, 청렴을 구현하는 강력한 정직성이 있을 때 가능한 표현이다. 그러나 지금은 과욕의 나락으로 떨어져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약이 없나고 애원하는 것은 또 다른 희극인가. 우리 국민은 총격과 광각이 엮여져 사는 힘이 강하다. 만약에 광각으로 치닫는 고질병으로 바뀌게 된다면 치자의 악명을 치유할 힘이 있을 것이다. 언제나 최한 기운을 갖고서 악한 기운을 씻어내는 국민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목 정 배

불교대 불교학과 교수

## 신입생 입시일정 최종 확정

96학년도 신입생 선발 입시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수시 시작되는 신입생 선발일정은 다음(표창조)과 같다.

오는 13일 특별입학 추천서접수

구분	세부시행	일정
특별입학	추천서류 접수	95.11.13(월)~11.17(금)
	원서접수	95.11.27(월)~12.1(금)
	예비수업	95.12.6(수) 10:00
	간담회	95.12.7(목)
특차전형	학력자발표	95.12.12(화) 예정
	원서접수	95.12.19(화)~12.26(화)
	예비수업	95.12.25(월)~12.26(화)
	면접고사	95.12.28(목) 09:00
천기전형	학력자발표	95.12.29(금) 예정
	원서접수	96.1.19(화)~96.1.6(토)
	원서접수	96.1.13(수)~96.1.6(토)
	예비 입반제	96.1.17(수) 09:00~17:00
	소점 예문제	96.1.17(수) 09:00
	체육교과	96.1.17(수) 10:00
	예능계 면접고사	96.1.17(수) 10:00
	인문계 논술 및 면접고사	96.1.18(목) 09:00~96.1.18(목) 14:00
	사범계 인·적성 및 면접고사	96.1.19(금) 96.1.20(토)
	실기고사	체육학과: 96.1.18(목)~1.19(금) 미술학부: 96.1.19(금)~1.20(토) 연극·영상학부: 96.1.18(목)~96.1.20(토)
학력자 발표	학력자 발표	96.1.27(토) 예정
	합격자 발표	96.1.29(월)~1.30(화)
편입학전형	마동특기 지원	96.2.3(토)~2.15(화)
	편입학원정	96.2월 초~중순예정



◇‘우리 큰 걸음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8백31개 노조원과 시민, 학생 등 4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주노총 창립 전국노동자대회를 지난 12일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했다. 이에 앞서 그 전날 연세대에서 창립대의원 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 선언을 했으며 권영길 전 연노련 의장이 초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날 결의문을 통해 민주노총 인정을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취재부)

**지배관원협력단**  
기적경고

정신건강지원  
정신건강지원

# 진짜 우리 형이었으면 좋겠다

## 형! 학교에 놀러가도 되죠?

흔히 TV에서 보여주는 소년·소녀가정은 아주 착하거나 아니면 불량소년으로 매우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입견이 소년·소녀가정의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네요. **글씨요.**

제가 만난 태훈이 녀석은 축구를 좋아하고 조관우의 눈도 아주 멋지게 불러 내는 중3짜리 사춘기 소년입니다. **“형! 학교에 놀러갈게요”** 했던 목소리가 지금도 찡찡 찡찡 울고요.

-신문방송학과 자원봉사단원의 말-

**동대신문사**

처음에 자원봉사자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도 오지 않았는데 태훈이 형이 학교에 놀러가면 좋겠다 싶어서 생각해줬어요.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근데 태훈이 형은 정말로 학교에 놀러가면 좋겠다 싶어서 생각해줬어요.

다음주에 학교 구경시켜줄게요. 형이 학교에 놀러가면 좋겠다 싶어서 생각해줬어요.

형이 진짜 우리 형이었으면 좋겠다.

-소년가정 김태훈(중3중년)군-

#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하이텔을 이용하실 경우, DDU 10계시판이나 D.D. Progress메일을 통해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 ‘사회복지사’

### 전문성 발휘 여건 조성 시급

김영삼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삶의 질의 세계화’를 주장하며 국민 복지의 증진을 세계화라는 국제적 흐름과 맞추는 정책의지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대신문사에서 국민의 소외된 분야에 초점이 맞춰진 기획을 맡아주고 있다. 나는 여기서 세계화에 발맞춘 국민복지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나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김영삼 대통령의 ‘삶의 질의 세계화’는 GNP성장방안으로 한국을 선진복지사회의 발전시킬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과업을 자원봉사자와 민간의 참여 확대라는 두가지 대안을 내세우며, 국가의 책임을 국민과 민간기업에 돌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곳곳에는 한국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발로 뛰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박봉과 과다업무에 시달리며 일하고 있다. 한 사회복지자도 하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여건을 조성해 주지 못하여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복지 전문요원조차 제대로 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는, 그 나머지 부분을 자원봉사자와 민간의 참여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전문적 지식을 얻지 못한 일반 자원봉사자가 과연 얼마나 양질의 서비스를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겠는가? 세계화란, 인류의 역사와 세계사화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지속적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정보화 시대로 접어드는 지금, 21년의 중앙일보와 우리 동대신문사의 경우처럼 메스컴의 관심과 함께 정부의 현실적 정책 지원이 동반되어 준다면, 우리 사회에 산재해 있는 사회문제와 소외된 계층의 삶의 질은 개선될 것이며, 진정한 삶의 질의 세계화와 복지사회 구현은 이루어질 것이다.

유 일 은  
(인문과학대 사회복지학과)

## “식당운영 영리목적 아니다”

### 조리실 비위생·불쾌한 실내환경 개선 힘써야

점심시간의 고민? 대학관에서 긴 밥줄을 뚫고 “아침밥” 같이 좀 주세요”를 연발하며 밥을 먹는 것인가, 명진가든이나 보리수에서 약간의 양념으로 이름을 달린 국수를 단무지에 말아 먹을 것인가, 아니면 협소한 원형가든에서 불친절한 아줌마들에게 치이머 돈까스를 썰던지, 맛에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동국대 식당에 들 수도 있다. 또, 내친김에 2~3일치의 식비를 모아 교수식당에서 날라버릴 수도 있다. 정말 선택의 길은 많지만, 제대로 된 선택은 별로 없어 보인다.

가장 대중적인 다량관 식당의 경우, 요즘 식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나아진 점이 눈에 띄지 않는다. 난자완스니 간자완스니 하는 새로운 메뉴가 생기는 듯하지만, 젓가락질 몇번이면 없어지는 반찬

과 맨밤에 국물 하나로 식사를 마쳐야 하고, 조리실은 여전히 비위생적이다. 식대인상이 들기안상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은 이해를 한다. 하지만 학생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공관위에서 식당운영을 통해 흑자를 낼 생각을 해선 안된다. 의식·주 종의 하나인 먹는 문제에 있어 학생들이 ‘군대밥’보다도 못한 ‘밥을 먹기위해 줄을 서야 한다’는 단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매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질 제고를 통한 쾌적한 식사를 약속하는 식대인상 이라면 학우들도 동의할 것이다.

또한 보리수나 원형가든, 명진가든의 경우 00가든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실내공기가 나쁘다. 겨울엔 좀 덥지만 여름엔 췌리 습물이 마칠 정도로, 하루 빨리 환기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새로 문을 연 백상, 명진가든의 경우 시설

은 좀 깨끗해졌지만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다. 음식맛이 떨어진다. 평가가 저평가이다. 먹는 장사만큼 남는게 없다고들 하는데 우리학교 식당업자들은 ‘저자입네’하며 도대체 투자할 생각을 안한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운영으로 흑자를 낼 새로운 업자를 찾든지, 학복위로 운영권을 넘기든지 해야한다. 그럴 생각이 없다면 6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학생들을 위한 재투자자를 찾아야 한다. 이제 학교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떠돌다가, 학교앞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불쌍한 동대인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 학복위, 업주들, 또한 학생들도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류 이 수  
(문과대 국문과)

## “5.18·비자금사건, 군의 정치개입에서 연유”

### 군의 정치적 이용근절 새로운 위상정립 필요

계절이 지나가는 캠퍼스에 이제 늦가을로 가득하다. 초록은 가을에 겨워 오색으로 물들어가고 불발의 소망은 가을날의 풍요를 이루었다. 누가 가을을 시인의 계절이라 했단가! 아름다운 가을날 자연은 아름다운데 사람의 삶은 꼭 그러한 것만은 아닌것 같다. 언뜻엔 얼룩진 5·18특별법제정이나 비자금이나 하는 것이 늦가을에 우리를 쓸쓸하게 한다.

이러한 것들이 옳지 못한 군의 정치개입에서 연유했다하면 나의 지니친 억울함인가? 그리고 지금도 전·후방에서 묵묵히 젊은 날을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참군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일반적으로 군이 정치에 개입하게 되는 사회적 요인으로 정치권 위기감과 고조와 정치인의 무능·정당정치의 미발달 그리고 finer의 정치문화의 미발달 그리고 finer의 정치문화유형에서 군인 민간의 간섭을 배제하고 군부정권이 성립된다고 한다.

그리고 군 내부의 요인으로 군이 국가이익의 수호자라는 사명감과 민간정부에 대한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불신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군의 조직과 무기의 독점사용등의 물

리적 강제력의 독점을 든다. 이러한 사회적 요인과 군내부의 원인이 상호결합할 때 군은 정치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군인이 정치에 참여하였을 경우 어떠한 기능을 하게 될까? 우선 긍정적인 면도 있었으나 조직적인 합리성을 행정문화에 따급시켜 근대화의 추진에 기여하고 국민적인 일체감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 기능으로는 확립적인 명령·복종은 이성적 사고를 저해하고 군은 권력유지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고 병영국가화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지나친 엘리트의 식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자기모순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면 바람직한 군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선 군의 역할에 대한 바론인식이 요구된다. 이는 선진국형의 직업군인으로서의 위상 정립이 필요하고 군의 정치적 이용을 삼가고 국가방위를 책임지는 군 역할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달과 정치문화의 발전으로 군이 정치에 개입할 명분을 줄여야 하겠다. 그리고 리더십(Leadership) 보다는 헤드쉽(Headship)에 의존하

는 듯한 지휘 스타일로 간부를 정예화하여 진정으로 부하의 자발적인 충성을 유도하여야 했다.

한국의 현대사에 있어서도 5·16 이후 군은 정치에 참여하여 왔고 신속한 근대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등의 긍정적인 면도 있었으나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 이에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의 준수를 규정하였고 군을 신성한 국토방위를 수행하는 국민의 군대임을 천명하였다.

이조음 속린말로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無罪)라는 말이 있다. 얼마나 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였으면 이런 말이 나올까 하고 생각해 본다.

Herling이 말하기를 “지켜지지 않는 법은 타지 않는 법과 같고 비치지 않는 법은 대와 같다”고 했다. 법의 이상은 정의(正義)이고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 높은 가을은 은행잎도 노랑게 돌풍이 거세게 불면 단풍이 바람결에 휘날린다. 그렇게 만추(晩秋)의 정(情)은 깊어 가나 보다.

이석규  
(법과대 법학과)

## ■ 지난해 동대신문을 읽고

### 활발한 캠페인 활동기대

#### 지면에 생생히 담아야

지난해 동대신문(제1187호)에서는 자원봉사 캠페인의 분위기가 두드러져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제1186호에 비해 소외된 이들의 실재를 좀더 생생하게 전달해 주지 못했고, 특히 4면 하단의 ‘소외된 이들을 찾아’의 기사는 일반적인 사실들만 나열했을 뿐 소외된 이들에 대한 사연은 찾아볼 수가 없어 아쉬운 생각이 든다. 캠페인 활성화되는 만큼 지면에 생생하게 담아야 할 수 있었으면 한다.

한편, 5면 총학생회 후보자 인터뷰기사는 학내 선거 분위기에 맞추어 그 시기가 적절했다고 본다. 특히 각 후보의 공약과 학생회 운영계획 등에 대해 자세히

알수있어 유용했었던 같다. 그러나, 그 질문과 답의 일부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이 없지 않다. 아무쪼록 동대신문사는 올바른 선거를 유도할 수 있는 언론의 역할을 훌륭히 해낼 수 있기 바란다.

이수훈  
(생명자원과학대 생명자원경제학과·본사모니터)

### 졸임말사용 자제해야

#### 노동악법기사, 시기적절

지난해 동대신문(1187호)은 우선 3면의 논설란을 불태 계속되

는 시사는단과 변함없는 편집으로 학우들의 시선을 끌지못함은 물론 진부함까지 느끼게 한다. 그리고 학우들에게 다소 생소한 단체나 연합들의 명칭을 약자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의아함을 먼저 주었는데 신문사측은 학우들을 좀 더 배려해주시기 바란다. 민주노총이 창립되는 이 시기적 흐름을 반영하는 근로자과정제와 변형근로제에 관한 기사는 시기적절성을 띄어 참신한 면이 부각된다. ‘나의 향기’는 아직 개척되지 않은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연을 취재한 것 같은 인상을 줌으로써 학우들에게 혼돈을 주었다. 앞으로 은근하고 지속적인 캠페인의 추진시행을 요구하고 싶다.

윤영미  
(자연과학대 기교과·본사모니터)

## 동/문/칼/럼

### “자신감으로 부딪쳐라!”



낙엽 떨어지는 보도블럭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기는가 싶는데 벌써 동장군의 입김이 얼굴을 때리고 지나간다. 11월이라는 계절은 우리에게 취업과 진로라는 단어로 불안, 기대, 희망과 동 대학 4학년생을 그 어느때보다 정신 없게 만든다. 하지만 어떤 이는 노닐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기는 준비를 다 해 놓았노라.

몇년 전 일이다. 대학 4학년때 6개월가량 신문배달을 한 남자는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모두가 꺼리는 겨울을 뚫는 것도 나름대로 까닭이 있었지만, 여하간엔 새벽 일찍 일어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모교에 배달할 때에는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어느날 아침, 겨울철의 새벽 5시30분은 아직 어둠으로 잠겨있을 때 우연히 승용차 한대에 눈길이가게 됐다. 시동도 걸려있고 차내등도 켜져 있길래 자세히 보니 학생인 듯한 두 남자가 열심히 책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 도서관이 팽배하였으면 이런 말이 나올까 하고 생각해 본다.

당부의 말을 좀 색다르게 주문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후배들을 대하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대학생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침에 새벽밥을 보고 저녁에 도서관에서 제일 늦게 나가게 기록을 3개월 동안 세운다 △세월 함달리는 회사에 들어가서 모든 업무를 어깨 너머로 배워본다 △아파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친구와 함께 배낭여행을 떠난다.(부모님의 원조는 N-I) △공부만 하는 여자애랑 한달간 계약동거를 하면서 정신구조를 분석한다.

후배들에게 한번쯤 듣고 싶은 부분들 △책상에 앉으면 전공서적으로 최소한 3시간은 볼 수 있는가 △인턴업을 할 줄 아는가 △자기 소개를 영어로 10분이상 할 수 있는가 △리포트의 각주나 후주를 정확히 표기하면서 한개의 주제에 대한 논술을 A4 2장 이상 쓸 수 있는가. △ATM현금 지급기로 입금이나 타행이체를

할 줄 아는가 △직장다니는 과선배를 이들과 회사명을 정확히 5명 이상 알고 있는가 △이력서의 특기란을 대했을 때 3초이내에 2개 이상 쓸 수 있는가 △학술발표법을 논하는 친구, 돈이 없어도 잘 노는 친구 각 3명 이상의 인연을 맺어 볼 수 있는가 △대학 1년의 나열보다 나름대로 구체적인 모습들을 들어 보겠는가. 나는 몇개나 동그라미 배웠는지? 그리고 후배들은 과연 몇개나...?

이야기하면 이렇다. 통이 넓고 크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지금 할당 몇만원 채워도 자기를 구속하는 직장인 이상,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곳으로 발길을 돌려라. 모든 앞서간 선배들이 항상 알려주었던 말, ‘자신감을 가지고 부딪쳐라. 너의 노력과 열정으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우뚝서라’, 나 역시 똑같이 이념 붙잡고 수 밖에 없다. 힘을 내자. 후배들이여!

이종현  
(인터미디어 이벤트·교육 93출)

### 목격골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내년 열심히 삽시다. 그리고 선거CC탄생을 축하합니다.  
- 구준서·서교문 선거운동본부

■경제'93 찬우형의 첫번째 휴가를 축하합니다.  
- 경제'94 '95

■축하합니다  
■정진아 생일 축하합니다.  
- 협기·영주·선희

■상한아 생일 축하해.  
- 경제'95상현이가

■뽀너seven의 밤나들이를 축하합니다.  
- 경영 카사노바

■홍성이 운주한테 장가갔다. 축하!  
- (야)복한95ICE

■늦었지만, 응영아! 11월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 누리미모가

■영우형도 정보과 '주둥이' Happy birth day.  
- 정보모기

■TOTO. 우승을 축하.  
- DU.T.C 이벤트

■그동안 고생하신 공대 친구들

## 동 / 약 / 광 / 장

할 죄가 뭐지? 인생을 낭비한 죄!! 추운겨울 아름답게 살아. 국어교육과949만세.  
- 취

■삼공4학년 여러분! 지금 취직이 되지 않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무엇이 되었는가 보다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할겁니다.여러분을 모두가 기성사회는 모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힘 내세요.  
- 졸업 걱정없는 후배·동기·선배

■그리고...  
■JH에게 수확여행 잘 다녀오고 가서 사고치지마라! 영~  
- H

■중그니의 임대예요. 11월14일 중그니, 노동해방 투쟁의 결의를 잊어라!  
- 이진경이 사회주의자들

■심한경 - 아디가 회장으로!  
- 동국대 해방 찬우회(法 '90)

■이변엔 꼭 변화된 모습으로 꼭 잡고 말거라. 동국대에 명세한다!  
- 논란P

■이현경 집으로 돌아와라! COME BACK HOME!  
- 이재복 정의95

### 온방골

■DKBS 형 그리고 동기들이! 종방을 축하한다.  
- 언혈에서

■은수야! 11월 2일 생일 축하해주지도, 축하해 주지도 못했네. 늦었지... 멀리서 인사 보낼게. 축하하고, 사랑한다  
- ring

■수고하셨습니다  
■개다리 소만국문과 연극의 명배우 문화새 수고!!  
- 철학과 도학우

■제3대 불교문화대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 수고하세요.  
- Old Miss

■추워진 날씨만큼 더욱 따스한 마음까지... 한해동안 수고했다. DU.T.C 화이팅!  
- 훈미

■알립니다  
■탈패 하루 찾집이 13~14일 동다습에서 있대요!  
- 13기 들

■사·복 새로히 학생회장으로 뽑히신 상국선배 축하해요. 열심히 하세요.  
- 민

■원태야! 13일 날 가는구나. 멋진 남자가 되어서 돌아와라. 임대 축하한다.  
- 꽃사슴

■무하고 동문화 다음주 목요일 학생회관으로 오세요. 많이 오이소.  
- 실질적 회장

■열심히 합시다  
■시란 겨울과 함께 제9대 불교아동학회가 이번 10대로... 학우 여러분! 한 학기동안 주신 관심 감사드리고 다음 해도 한마음으로 열심히!  
- 기획부장 현주

■선거 후보 여러분. 또한 각 운동종비하신 분들 모두 열심히 합시다.  
- 도학우

■그리고...  
■가정교육과 미쪽이와 수녕이의 1학년 Freshman생활 마무리 잘하길 빈다.  
- 기숙사 영미언니

■성애, 주은, 은주, 동을생활 마무리 잘하고 따뜻한 겨울 준비해라.  
- 2학년 쿨언니가

■불후 제 15대 임원단 선출된 여러분 더 큰 불후로 만들기 위해 나아갑시다. 그리고 14대 임원진 선배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불후 화이팅  
- 불후를 사랑하는이로 부터

■선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재봉선배와 사·복 학우님을 우리 힘입니다.  
- 사·복 95

### (구내식당 식단표)

다량관 식당		동국관 학생식당		교직원식당	
13(월)	부림계(1200)	13(월)	순두부김치(900)	13(월)	원장죽(2500)
14(화)	소고기야채(900)	14(화)	닭볶음탕(1000)	14(화)	초겨울(2500)
15(수)	홍합(700)	15(수)	냉이황기국(900)	15(수)	남이오(2200)
16(목)	소고기소고기(1000)	16(목)	떡볶이(1100)	16(목)	해동죽(2500)
17(금)	소고기국밥(1200)	17(금)	두부장국(900)	17(금)	수제비(2200)
18(토)	소고기국밥(1200)	18(토)	소고기국밥(1200)	18(토)	소고기국밥(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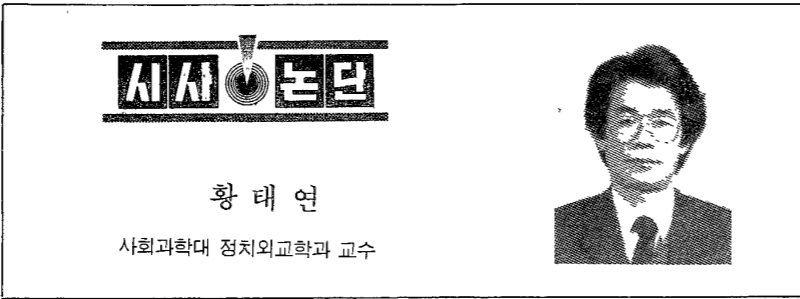
비자금 정국과 노동운동탑

# 민노총출범·5.18문제 주변화 경계하자

5천억원의 비자금 정국은 소수 소비자를 20%나 급상승시킬 만큼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어 놓았다. 과거에 노태우씨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던 대다수 국민의 정치적 관심과 대회는 정치적 허무감에서 운동 비자금의 규모와 정치권의 비도덕성에만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 못지 않게 결코 깨끗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언론은 국민을 정서적으로 선동하고 정객들은 국민들의 이러한 정서동향에 대한 정치적 손익계산에 바쁘다.

물론 그 많은 돈이 국민으로부터 절취되었고 어디에 쓸 용도인지는 모르지만 국민들께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분노할 일이다. 비록 개혁과정에서 자금이 모자라 쪼들 때는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노쇠가 기껏 쪼들지 못한 곳에 쓸 그 비자금을 대학들에 분할 기부했다면 좋을 것이라든가 심술궂은 농담이 생각나 홀로 씩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비자금의 불법성과 천문학적 규모, 정치권의 비도덕성에만 놀라고 분노하고 속앓이를 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이지도 모른다. 서민들의 슬관정론(政論)은 대체로 기성 정치인들을 모두 도둑놈들이라고 무차별적으로 매도하는 '싸늘이'논리와 정치적 나팔리즘으로 끝나기 십상이고 결국 새로운 정치세대의 등장에 대한 기대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 세대교체는 바로 세간에 이 비자금 정국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집권세력의 정치적 전락이 아니었는가! 과거 정치적 불안에 속아 노쇠를 대



**시시논단**

황대안

사회과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령으로 선택하였던 국민의 대다수는 분노하면서 또 속을지도 모른다.

속은 것이 이뿐이라... 그런 강도 높은 노동탄압을 가해 오던 정부는 이 비자금정국을 11월 11일 출범하는 민주노총의 방해공작에 최대를 이용하고 있다. 비자금정국에 운동관심을 빼앗긴 국민은 노동탄압에 신경 쓸 틈이 없다. 이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여 민주노총 지도자 19명을 일찍이 지방수배한 데 이어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노동운동단체협의회 등의 10여명 노동운동간부를 긴급 구속했거나 수배했다. 나아가 당국은 3인 민주노총 준비공동대표 중 유일한 미수배자인 권 아무개씨를 내사중이다. 그 여타 어떤 무명 노동운동가들이 수배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문민정권 출범 이래 노동운동을 대확산대로 공식 인정하던 이인제 노동부 장관과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던 남재희 장관을 거쳐 이제 전 내 장관의 노동부는 노동운동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으로 돌아섰다. 노동

부는 '재벌부'로 변질된 지 오래인 것이다. 전 내 장관은 비자금과 관련하여 검찰에 소환된 재벌을 포함한 경제 5단체장과의 회동에서 민주노총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탄압을 공식 선언했다.

보통인의 도덕적 상식이라면 노동운동을 탄압하려고 별라 왔다 하더라도 비자금과 관련된 재벌들의 비도덕적 행위가 사법선상에까지 불거진 만큼 비자금 정국을 좀 지나 노동탄압을 하겠지만, 상식을 버린 노동 당국은 비자금 정국을 철저히 노동탄압에 역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별짓을 다 당해 온 국민들이 이제 와서 상식 없는 정부라고 불평하기가 뭐하지만, 그래도 '상식'이라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문민정부가 역대 가장 상식 없는 고압적 노동탄압 정권으로 전락하는 것은 너무나도 씩씩한 것이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인위적으로 조성된 비자금 정국으로 또다른 중요 정치현안인 5·18문제가 주변화되었다. 이런만큼 비자금

정국과 관련하여 정서적 분노에만 사로잡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치적 균형각각을 회복하고 분분력을 되찾을 때이다.

비자금 정국 그자체와 관련하여 과거 정치군부처럼 기성 정치인은 모조리 나쁜 놈들이라고 무차별 매도하는 '싸늘이'논리를 펴는 것은 정치적 분분력을 잃은 것이다. 현 비자금 정국은 국민전환과 정계개편을 노리는 권력자의 '승부수'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성되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비자금 정국과 관련하여 기성 정치인을 지극히 나쁜 사람, 상당히 나쁜사람, 어느 정도 나쁜 사람, 조금 나쁜 사람, 비교적 깨끗한 사람을 가려 볼 줄 아는 분분력을 회복하는 것은 권력자의 '승부수'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성되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비자금 정국과 관련하여 기성 정치인을 지극히 나쁜 사람, 상당히 나쁜사람, 어느 정도 나쁜 사람, 조금 나쁜 사람, 비교적 깨끗한 사람을 가려 볼 줄 아는 분분력을 회복하는 것은 권력자의 '승부수'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성되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매체가 조변해 주는 일에 관심을 너무 일면적으로 집중시켜서도 안 될 것이다. 매체에 의해 주변화된 일을 가운데에도 우리나라의 장래를 좌우할 중요한 정치문제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요한 정치현안들이 이 비자금 사건으로 의도적으로 가려지고 있는 정세라면 정치적 관심의 균형을 잃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균형을 잃고 있는 사이 국민은 한편에서 정치적 대중조직의 화석이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가령 노동운동이 소리 없이 탄압받는 것이다.

## 사설

### 과학사회 후보부재 심각

어느덧 11월 중순으로 접어들었다. 초겨울 요즘의 캄캄스는 스산하기만 하다. 정작 난방시설이 갖추어져야 할 강의를 매우 추워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힘들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들린다. 모두들 여서 종강하기를 기다리는 것만 같다.

이제 서서히 2학기를 마무리하고 방학을 준비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때인듯 하다. 학생회도 마찬가지로이다. 단과대학생회이든 과학사회이든간에 선거가 어느정도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올해의 사업을 올바로 평가하고 차기 학생회에 제대로 이월해야 할 것이다. 학생회활동이란 단절했다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월할 수 없는 상황을 호소하는 과학사회가 많다. 선거가 끝난 몇몇 과를 제외하고는 아직 후보자도 등록하지 않은 상황이 처한 학과가 대부분이다. 내년의 학생회를 책임지려는 후보자가 없는 것도 그렇고 관심부인 듯 과상황에 무관심한 학생들이 있다는 것도 매우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서울캠퍼스 9개 단과대의 선거가 끝난 시점에서 후보자 부재로 선거를 연기한 문과대와 사회과학대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그것은 단과대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학사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까지 집계한 결과 한과대 후보자등록이 없었던 단과대는 이과대, 생지대 등 4개 단과대이고 나머지 단과대도 한두과만 선거를 치렀을 뿐이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학부제로 인해 새롭게 학생회체계를 고민해야 할 때지만 일단 그것은 제쳐두고라도 과선거가 늦어지는 것만을 추궁하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결과가 학생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학생회는 몇몇 일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학생회 존립근거역시도 학생들 모두 일 수 밖에 없기에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주 개회된 2·3차 유세와 공청회 역시 서로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고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나름의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만, 참여한 학생은 많지 않았다.

문제가 학생회자체의 무관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부한다. 선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당연히 중선위의 몫이다. 지난해 한 후보진영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문과대 사태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다. 공청선거에 대한 과도한 의식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싶다. 학생회의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그간 해온 것 이상의 활동을 기대한다. 또한 학교당국에도 당부하고 싶다. 학생회의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학교당국도 일조해야 하며 어떠한 오해도 낳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 4차유세를 치르며 투표한 날이 된다. 결국엔 역시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내년을 준비하는 첫걸음으로 적극적인 선거에의 동참이 필요하다.

### 정치세력화 논의 전개 배경

요즈음 전국연합을 비롯한 민족민주진영에서는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전선집사에 대한 재논의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 그 결론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떠한 내용으로 내려질지 아직은 판단하기 힘들지만, 그러한 논의의 배경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말해 민족민주운동진영이 독자적 정치세력화(결과는 물론 독자 정당 결성으로 귀결될지)라는 주제하에 논의할 때 배경을 든다면 세가지가 될 수 있다. 하나는 객관적인 정세의 변화이다. 즉 87년 6월 현정 이후, 특히 김영삼정권의 등장으로 민족민주운동의 이념인 자주 민주통일에 대한 접근이 있어 또다른 사고를 강요하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 확대, 전민항쟁에 대한 가능성의 저하, 우리사회에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시민운동 영역의 존재들이 바로 민족민주운동의 고유한 투쟁양식인 대중투쟁과 전민항쟁을 통한 사회변혁의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두번째로는 대중운동이 발전하고 있으며,

### ◇ 전대기전 사회분과 공동기획시리즈 - 민민진영 정치세력화의 올바른 방향

## 정치세력화의 귀결은 대중정당 건설

### 바람몰이식 탈피해 국민적 기반구축해야

발전하는 대중운동의 요구가 집결의 형태로 전개되기 보다는 다양한 방향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번째로는 군부독재세력의 약화와 민간정치세력의 강화로 인해 제도 정치공간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더이상 군부세력이 정치권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국민들은 제도 정치권이 썩었다고 느껴면서도 정치적 문제의 해결은 정치권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제도정치적인 영역이 확고되고 인정되는 것이 자급의 현실이다.

#### 정치세력화의 이념과 경로

전선집사의 재편은 앞에서 이야기한 객관적 현실과 주체적 조건을

세밀하게 따져보면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선집사의 재편속에 민족민주진영의 독자정치세력화도 진행될 것이다. 또한 전선집사의 재편과 독자정치세력화는 신중을 기해서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전에 민족민주진영에서 일부 독자정치세력화를 모색하거나 제도야당을 통한 수월적 차원에서 진행된 정치권 진입의 과정이 대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경험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민주세력이 지향해야 할 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다시말해 양극세력으로 대표되는 구 정치세력에 대한 반사체로서의 정치세력화와 수월적 차원에서 점진적인 정치세력화 두가지 모두는 결국 양극세력에 의해 또다시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두가지 모습은 민족민주진영의 올바른 정치세력화라는 거리가 멀다. 민족민주진영의 독자정치세력화-대중정당 건설은 민족민주진영의 자주 민주 통일의 이념을 분명히 하면서 국민들에게 접근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같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민족민주운동이 모색하는 정치조직-정당은 계급정당이나 전위정당이 아니다. 그것은 각 계각층이 모여 민족의 장래를 고민하고 국민의 정치적 비전을 열어가 는 통일전선적 정당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와 당운영에 있어 민주화와 집중화, 자립성을 기해 나간다면 민족민주진영이야말로 지금까지 우리역사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현대적 정당정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민족민주진영의 정치세력화는 철저한 주체적 준비를 통해 이뤄질 것이다. 정치조직 구성에 있어서도 예전에 학생운동을 한 경험을 가지고도 자립할 나서는 것이 아니라, 민족민주진영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년 활동가와 노동, 농민, 지역운동의 대중활동가들이 중심적 세력을 형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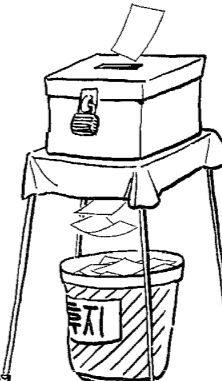
#### 정치세력화의 성공가능성

정치조직과 정당은 계급과 계층에 기반한 대중조직과는 그 성격이 애초부터 다르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활동을 펼치지 않으면 안되며, 국민적 인식의 토대를 구축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세력화는 바람몰이기가 아니라 진실성과 조직적으로 승부를 해야 한다. 국민적 인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현재의 급급을 인내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단련이 지난한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통해 축성되어 왔다. 바로 그러한 경험과 끈끈한 대중운동의 발전이 민족민주진영 정치세력화의 성공가능성이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사회분과)

## 동국만평

관상수



소중민 헌표, 유지기 되지않길...

### 개교 90주년 기념 엠블럼 표어 1차 응모작 심사 결과 발표 및 2차현상 공모

## 90 청년 - 동국을 보여주자

### 1차 응모작 심사결과

(총응모 작품수)	표어: 29작품	엠블럼: 8작품
(당선작)	표어: 없음	엠블럼: 없음
(가작)	표어: 1작품	엠블럼: 없음
(입선)	표어: 5작품	엠블럼: 2작품

(표어 가작): 입상자-전기공학과 1학년 김민석  
**"민족일 이른 동국 백년, 세계로 향한 동역 지성"**

(표어 입선)  
 세계를 여는 동국대, 미래에 도전하는 동국대(광고학과 1학년 이승연)  
 열린동국, 그 변치않는 청정함(토목공학과 1학년 이규찬)  
 걸푸른 소나무 기상 웅대한 동국, 솟을 구순 그 소리(불교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송덕금)  
 오라! 여기로, 보라! 우리를, 가자! 다함께(신문방송학과 1학년 신현주)  
 걸어 온 90보, 영원한 걸음을 열린 동국에서(산림자원학과 2학년 김근수)

(엠블럼 입선) 미술학과 3학년 김영산, 미술학과 3학년 권민우  
 \* 시상식은 2차 응모 입상자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 2차현상공모안내

구분	엠블럼	표어
응모대상	본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동문, 교직원, 일반인	
작품내용	90년 역사를 함축하고 미래동국의 비전을 느낄 수 있는 상징 도안	-90주년을 기념하는 내용 -21세기(또는 개교100주년)을 향한 동국 발전의 의지를 담은 내용 -동국인의 화합과 단결을 담은 내용
작품형식	A4크기의 화판에 4원색 이내로 직접 도안 또는 컴퓨터그래픽 출력물	20자내외(소정양식)
제출기한	1995. 11. 30(목) 17:00까지	1995. 11. 30(목) 17:00까지
시상내용	당선작(1작품): 100만원 가작(2작품): 각 30만원 입선: 기념품	당선작(1작품): 50만원 가작(2작품): 각 20만원 입선: 기념품
제출처	개교100주년기념사업본부(본관4층)	
심사위원	개교90주년행사집행위원회에서 별도 위촉	
발표 및 시상식	1995년 12월 4일자 동대신문에 발표, 시상식은 발표시에 공고함	

문의: 260-3792~4(개교100주년기념사업본부)

1995. 11. 13.

## 개교90주년기념행사집행위원회

**열다섯에 익숙해진 구산이의 의젓한 미소**

김구산(15, 환일중 2)  
중어중문학과 자원봉사

**생활책임진 할머니 건강약화 웃음잃은 15살 가장**

두명이 겨우 누울만한 단칸방, 여가 지기 날부러진 세간, 한귀퉁이에 걸린 낡은 갈색교복.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소년가장인 구산이는 한귀퉁이에 걸린 낡고 작은 교복이 꼭맞을만한 조그만 체구의 중학교 2학년생이다.

이제 15살밖에 되지 않은 구산이에겐 가슴에 들어둔 슬픔이 너무 많다.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다음해 어머니가 돌아가실때 구산이는 국민학교 3학년이었다. 한창 부모사랑을 받으며 자랄 나이에 딸려가장이 되고 만 것이다. 하지만 구산이는 결코 혼자만은 아니다. 두살위인 이쁜누나 '미나'가 있고 외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이다.

얼마전부터 구산이에겐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 누나 '미나'가 학교를 그만둔 데다 늘 돌봐주시는 외할머니마저 지금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날짜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저게(구산) 조그맣고 약해보여도 속은 똑똑해. 인사도 얼마나 잘하는지 동네에 어른들이 다 이해하지"하며 손자사랑을 하시는 할머니는 네발중 팔이었던 구산이 엄마가 죽자 친가에서도 돌보려 하지 않아 애들을 맡게 되었다.

어렵지만 신겨주는 이모들이 있고 간혹 조금씩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그려져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지난 3일 구산이를 찾아갔던 중문과 학생들은 소년·소녀가장을 도와준다며 찾아가 편히 상처를 건드리려는 건 아닌가를 걱정하며 구산이를 기다렸다.

공부하러 갔다며 6시가 조금 지나 들어온 구산이는 낯설은 사람들이 있어 놀랐는지 아무말없이 있다가는 이내 조금씩 미소를 지어보인다. 그렇게 웃어 보이는 구산이의 모습은 흑이나 상처를 주지나 않을까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준다.

공부도 가르쳐 주고 같이 놀러도 가져다 이젠 친형·누나처럼 잘 지내자는 말에 구산이는 그저 미소만 지어 보일 뿐이다.

말만큼 쉽지만은 않은 봉사활동, 소위된 그들에게 보이는 관심들이 일사적인 자기만족에 그치지 않길 바라며 언젠가는 크게 활짝대며 웃어낼 구산이의 밝은 모습을 그려본다. (미)



**중구지역 소년·소녀가장과의 첫 만남**  
기 획 시 리 프 (3회)  
본사 자원봉사캠페인 '열린대학 봉사하는 동국인'에 참여한 역사교육과, 중어중문학과, 신문방송학과, 광고학과 학생 20여명은 지난 3일 중구관할 소년·소녀가장 5세대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호에서는 이날 봉사활동 동행취재기를 신는다. (편집자)

시준기 태훈이의 고민

김태훈(15, 장충중 3)  
신문방송학과 자원봉사

**자원봉사로 맺어진 형과 동생**  
"선물보다 직접 찾아온 그 마음이 더 좋아요"

열다섯살난 태훈이 녀석은 새로운 청바지에 연실 신이 난다.

자원봉사 한다고 불쑥 찾아온 수민이형이 주머니를 털어 바지를 사주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태훈이가 정말 신이 나는건, 멋진 형이 새로 생긴 까닭이다.

2살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마저 집을 나가버려 이모님댁에 같이 살게된 태훈이는 소년소녀 가정이다.

친척집이라는 울타리가 있던 하지만, 이모부도 안개신 이모님은 요즘 몸이 아파 일을 나갈 수가 없어 형님이 어렵긴 마찬가지이다. 빛 한줄기 들어오지 않는 지하 단칸방으로 내려가는 계단 구석에는 연탄이 쌓여있고, 쌓여진 연탄을 피해 몸을 돌릴리치면 어느새 태훈이네 방문앞에 와 있다.

어른 병명이 들어가 없었으면 꼭 찻탕한 좁은방에 이모님과 사촌형, 누나와 살고 있는 태훈이는 자기 방을 소개하는 게 어색한 듯 웃으며 수민이 형에게 요구르트를 내온다.

신당3동 사무소 직원 이수정씨의 말대로 태훈이는 걸음은 의젓하지만 한창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 소년인 것이다. 자원봉사를 신청한 수민이에게 이수정씨는 "한두번의 호기심으로 소년소녀 가장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죠. 하지만 진정한 도움을 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태훈이처럼 사춘기인 소년가장들이 상처를 크게 입는걸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여자친구가 있다는 짓짓은 수민이의 질문에 처음엔 없다고 딱 잡아떼더니 시간이 좀 지나고 친해지니까 슬슬 고백(?)을 하기 시작한다.

"몇일 전에 여자친구한테 전화왔을때 그냥 끊으라고 했

는데 화가 났나봐요. 그래서 요즘은 전화도 안해요."

태훈이 녀석 이마에 여드름이 송송 솟고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을 하는걸 보면 영관 사춘기 소년인데 고민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있느냐는 물음엔 아무런 말이 없다.

사촌형과 누나가 있던 하지만 스텝일곱, 스텝셋의 나이 터울은 쉽게 좁혀지지 않아 더 외로운 모양이다. 키가 작으면에 속해 친구들이 농구시합에 잘 안끼워줘서 불만이라는 녀석은 왜소한 체격에 어울리지 않게 태권도가 3단이라며 자랑을 하지만 싸움은 하지 않는다고 정색을 한다.

"공부를 좀 못해서 걱정이지만 그런 인력으로 안되는 것 같고, 그저 나쁜길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착하게 커준 게 고맙지요. 뭐" 하시는 이모님의 말씀에 태훈이는 속스러운지 얼굴이 빨개진다.

그런 태훈이를 데리고 중구집으로 간 수민이에게 녀석이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한다.

"형, 형은 돈이억을 준다면 노태우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라고 묻는 태훈이의 질문에 수민이는 "글쎄, 모르겠는데"라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가로짓지만, 태훈이녀석은 "나 같으면 돈 1억 준다면 용서해 주겠다"며 "돈주는데 용서가 문제예요?"라고 말하며 씨의 웃는다.

수민이는 "세상에 돈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좀더 크면 이해할 수 있을거다"라고 말하며 태훈이 머리를 쓰다듬는다.

당장 입을 바지가 하나 밖에 없어 고민하는 태훈이에게 돈보다 더 귀중하게 무엇이라고 자세히 설명할 수 없는 수민이는 그저 답답할 따름이다. (기)

경이네 삼남매

역사교육과 자원봉사 백경아(15, 장충중 2)  
백소현(13, 장충중 6)  
백승호(11, 장충중 4)

**좁은 방에서 피어나는 세남매의 꿈**

유난히 수줍어 하는 첫째아이 경아, 새침하면서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둘째 소현이, 장난끼 어린 웃음으로 모두를 맞이하는 막내 승호. 분교 역교과 1학년 언니·오빠들을 맞이하는 세남매의 표정이다.

김치와 과일꾸러미를 들고 신당2동 가파른 달동네길을 지치다싶을 정도로 오르면서도 머리속을 떠나지 않던 '혹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하는 걱정. 그것은 서로의 만남에 어색함을 느끼게 했지만 소개를 위해 나선 동사무소 아저씨의 분주한 설명에 보이지 않던 벽은 조금씩 허물어져 갔다.

짧게 깎은 까까머리를 자기의 솜씨라며 자랑하는 막내 승호는 국민학교 4학년이고 색종이부터 프라모델까지 만드는 것은 뭐든지 좋다고 한다. 가끔 방과후엔 친구에게 자전거를 빌려 줄일 타기도 한다며 내심 자전거를 갖고싶은 눈치지만 "갖고 싶어"라는 문음에는 고개를 끄는다.

승호, 경아와는 달리 쌍꺼풀이 지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소현이는 국민학교 6학년이다. 세남매중 유일하게 왼손잡이고 언니·동생과는 달리 화려한 웃음을 좋아하지만 가끔 해본 웃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무는 모습엔 아무진 면이 없보인다.

생각이 깊든듯 말수가 적은 큰언니 경아는 한창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교 2학년이다. 감수성이 예민할 때지만 항상 반에서 1·2등을 다투며 동생들에게 모범을 보인다. 반에서 반장도 맡고 있다며 속쓰러워 하지만 큰언니로서의 의젓함이 숨어있다. 학교가는 길과 교보문고가는 길외에는 다녀본 곳이 없다는 경아는 책읽기를 아주 좋아하고 나중에 국문학과를 가고 싶다고 한다.

친남매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개성이 서로 다른 세남매는 소년·소녀가장이다. 고모님께 얹혀 살아 당장 생계문제는 없다지만 부족하나마 정부 보조금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붕에서 빗물이 쉴 정도로 낡은집에서 매년 치솟아가는 연탄값을 걱정하는 고모님께 형편으로는 세남매의 생활을 책임지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역교과 1학년생들과의 만남은 커다란 힘은 아니지만 작은 희망으로 받아들여진다.

처음 만남 유난히도 말이 없던 조건(역교1)군은 방이 너무 작아 앞으로 세명이상 찾아가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잊지 않은듯 며칠후 혼자 경아네 집을 찾아가 승호의 공부도 봐주고 저녁도 함께 먹었다고 한다. 그런 건이의 따뜻한 마음은 세남매에게만 주어지는 작은 도움이 아닌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 아닐까. (김동희 기자)

**음악로**

**후색선전**

선거 한창인 지금 학생들 대부분은 후보자들의 공약에는 무관심한 것처럼 보인다.

이들반중이나하듯 지난 8일 총학생회 1차유세시 제11대 학생회를 비방하는 등의 인신공격이 날뻐했다. 이로인해 유세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간 큰 남자가 득실대는 곳 담배나 피나불고 있는 여자친구..." 지난 8일 녹야원에서 실시한 총학생회 1차 유세때 나온 후보자의 연설도중 나온 말이다.

싸늘한 날씨속에 경청하려 모인 소수의 학우들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물론 타후보자들의 연설중에도 이전 총여에 대한 비판은 있었으나 사업활동에 한정된 얘기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선관위측은 유세후 이에대해 곧 비공회의를 소집하고 경고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측은 유세후 이에대해 곧 비공회의를 소집하고 경고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선거 공약은 뒤에 두고 강경적으로 치우친 현 선거는 학우들의 후보를 선택에 더욱더 혼돈만 부채질하고 있다.



OO후보... 어찌가 제제구!

나 경결정에 대한 더이상의 항의는 없었다.

공약을 벗어난 강경처음의 결과로 유세가 박탈되어 마지막유세인 야간유세에 나선 사건의 당사자들은 울먹이며 또다시 초점을 흐리는 연사를 반복함으로써 일반학우와의 괴리감만 더해 놓고 있었다.

올해 선거는 단독후보추진에 예년에 비해 더욱더 늘어나 유세장을 찾는 청중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선거 공약은 뒤에 두고 강경적으로 치우친 현 선거는 학우들의 후보를 선택에 더욱더 혼돈만 부채질하고 있다.

"정적선거,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아문과 현실은 다름걸요"라고 말하는 선거운동원의 말속에 올해도 정적선거에 대한 학우들의 기대가 툭터버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현주 기자)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삼성**

**한걸음 갈때 다섯계단 오른다.**

**소재산업의 성패가 미래산업을 좌우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마음의 끈을 놓지 않는다"  
소재산업분야에서 세계와 당당히 겨룰 수 있게 된 지금, 저는 크나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소재산업의 경쟁력이야말로 미래를 창조해내는 경쟁력이기 때문이죠. 페라이트, 파인세라믹스, LCD용 경밀평판유리-바로 세계속에서 승수는 삼성코닝의 자랑이자 저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발해야 할 첨단소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코닝으로 오십시오. 삼성코닝에서의 한 걸음이라면 다른 곳에서의 다섯 걸음과 같은 것이니까요!

**삼성코닝에서 출발하십시오. 전세계TV브라운관 유리 5개중 1개는 삼성코닝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첨단세라믹 기술로 21세기를 여는 첨단소재 개척자 삼성코닝— 삼성코닝은 각종 전자제품의 핵심인 세라믹스를 비롯 세계시장 점유율 20%가 넘는 브라운관용 유리, LCD용 경밀평판유리(세계점유율16%), VTR용 로터리트랜스포머(세계점유율26%)등을 생산, 세계 전자산업의 발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병래 이사 '77년 정밀기계과 졸업, 특산품개발 해외프로젝트 담당이사

독일 세라믹공정장 중국 천진공정장 갈라시아세라믹 공정장 수원공정장 구미공정장

첨단 소재기술을 통해 세계를 향합니다

**SAMSUNG**  
삼성코닝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이테크비즈니스 스텝에서 세계 최우수 팀장경영 회사로 선정 95신입기술혁신상 통상산업부 장관상 수상

◆공대앞 농구장 문제 있다

콘크리트바닥위에서의 운동 부상위험 커 충격완화 보호면 필요



새내기 농구장지, 백상체제를 비롯한 각 단체 체육행사를 포함해 하루도 빠짐없이 시합이 벌어지는 공대앞 농구장은 본교 학생들에게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과 스포츠크레소에 일익을 담당하며 과 대학전이 벌어질때면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응원소리와 함께 호흡하는 공간인 것이다.

그러나 공대앞 농구장은 넘어져서 상처를 입거나 접프위 착지할때 발목이 빠는 경우가 빈번해 황시 부상의 위험을 안고있다.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바닥면은 더욱 위험요소가 크다. 또한 시합 후 발바닥이나 발목의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인체공학을 전공하며 있는 조양(산업공학)교수는 "아스팔트 위에서는 조깅이나 줄넘기 같은 운동을 피해야 한다. 운동을 할때 아킬레스건과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은 튜머리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콘크리트는 아스팔트보다 더 위험하다"는 말을 덧붙인다.

본교 학생들은 아스팔트보다 위험한 콘크리트바닥에서 조깅도 아닌 농구라는 격렬하고 활동량이 많은 운동을 즐기고 있다. 심지어 급습은 구두를 신고 운동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조양교수는 "탄력성이 강한 폴리우레탄으로 콘크리트면을 포장하면 무릎등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단국대등 몇몇 대학들의 경우도 농구코트의 콘크리트면 위를 폴리우레탄으로 포장해 학생들의 무릎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겨울이 다가와 농구를 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장만 날씨가 풀리는 날이면 농구장에는 사람들이 북적대고 있다. 이들의 무릎을 보호해줄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쉽고 간단하다.

(김희동 기자)

◆총학·총여 학생회 입후보자 공청회 정리



◇'총학 및 총여학생회 입후보자 공청회'에 참석한 각 후보자들과 학내 언론사 기자들로 구성된 패널들이 질의 응답을 주고 받고 있다.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제28대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한 박종민·박정민·유병문·황인규·조영호·김보현(이상 가나다순)과 제10대 총여학생회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서정은·조윤숙(조가 참석) 가운데 공청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동국 Post가 패널로 참석해 공청회 및 개별질문을 각 후보들에게 던지고 3분이내로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공청회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본다. (편집자)

-본교는 내년부터 학부제를 실시하게 된다. 학부제 실시에 따라 모색되고 있는 새로운 학생회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학부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서정은·조윤숙:대학은 사회구성원의 재생산 통로라는 보편적 성격과 학부제라는 특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다. 학부제는 대학을 하나의 수단으로서 전공선택의 다양성을 주지만 자원에 더 편입될 수 있는 원리라 생각한다. 총여는 단과대학로 학회를 지지, 강화하고 건설을 추진해 단위를 건설해 나가 학부제에 대비할 것이다

=박종민·박정민:학부제를 우리 학교만의 문제로 봐선 안되고 교육전반에 걸친 문제로 봐야한다. 학습의 관리학장, 자치권 확대와 전문성 강화 내용의 지속성을 위해 집행부 체계를 위원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금의 유임부서 관련 조정을 대신할 수 있는 민중연대위원회 고민중이다.

=유병문·황인규:학부제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 준비와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수·학생·직원이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 틀을 마련해야 하며 학내대표모임, 학회강화와 단과대별로 전학대회, 학회장안착회의마련 등으로 행정·종적 구조를 올바르게 설정하고 맞춰나가야 한다. 총학은 이를 위해 연구위, 발전위를 꾸려야 할 것이다.

=유영하·김보현:학부제 시행후 어떻게 대응하고 겨울학기때 무엇을 준비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학부제 시행 이후 발생한 혼란에 대

비한 대안이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학부제란 학문적 개념과 학생회 정치조직의 개념인 학생회의 개념의 차이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 우리모두가 고민하는 것을 묶어내는 작업이 학부제를 위한 학생회건설에서 시급한 것이라고 본다.

-내년 4월 총선과 관련하여 기성단체 및 재야에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정치세력에 대한 각 선문본의 입장과 4월 총선으로 민주운동진영과 국민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서정은·조윤숙: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선거를 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 정세에서 선거가 규정되어야 한다. 선거는 민중세력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총선속에서 5.18투쟁, 노태우씨 비자금사건등이 자본주의 사회속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모순이라는 것들을 폭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민노총의 세력화를 위한 선거로 사고되어야 한다.

=박종민·박정민:민중,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를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가 중요하다. 4월총선을 통해 정권을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안세력으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되는 계기로 생각해야 한다. 5.18학살자 처벌 및 기타 노동운동들 민중연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5.18학살자 처벌을 위해 집행부 체계를 위원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금의 유임부서 관련 조정을 대신할 수 있는 민중연대위원회 고민중이다.

=유병문·황인규:총선의 의미는 97년 대선으로 이어진다. 87년 대선에서 노태우가 과연 후보의 자격이 있는가를 보았을 때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운동진영은 분열해서 선거를 잘못 치렀다. 지차체는 민중의 의견이 수렴된 중요한 성과였다. 총선에서 우리는 5.18학살자 처벌문제, 민노총 사수투쟁, 비자금 부정부패 처벌투쟁 등 대중성, 투쟁성, 계급성을 강화해서 대중투쟁속에서 총선을 맞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회의 정치력 복원이 필요하다.

=유영하·김보현:동대 내부문제 해결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개성있는 개인을 집단에 몰입시켜주는 안이다. 목적을 위해 학생들을 수단화하지 않는 학생회를 만들어야 한다. 각각의 개성을 살리

는 조직을 구성하고 사회를 사회주의적 관점으로만 보지 않고 참다운 비전제시가 필요하다. 학생회 자체의 의견개진이나 나라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절대 필요하다.

(개별질문)

-학교발전이 있어서 재단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다. 재단의 역할과 이후 재단투쟁의 방안은 무엇인가.

=박종민·박정민:우선 대학교육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대학교육은 국가교육 전반의 문제라 생각되고 학생들을 사회건설세력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대학교육에 관한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여기에 재단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조계종단의 본교지원은 늘어나지 않고 종대의 실제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행계획이 마련되도록 강제해낼 것이다.

-새로운 학생회인 제28대 총학생회는 전(27대)학생회에 대한 비판이 필요할 것 같은 것을 수용해야 한다. 제27대 총학생회에 대한 비판을 해 달라.

=유병문·황인규:각 학생회는 과거 학생회의 영향을 받는다. 제26대 총학이 학생들에게 불신을 가져다 준 이후 황폐한 기반에서 27대 총학이 서기 힘들었다. 이에 28대총학은 불신을 극복하고 27대 학우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부족했던 점을 살리고 집행위원의 헌신적인 모습을 본받아 27대의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다.

-연세대의 작은 학생회는 실제로 평가되고 있다. 조직적 역량부족과 운동세력의 보류에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 발생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유영하·김보현:연세대의 비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문화적 풍토나 사상이 전혀 다르다. 운동의 다각화,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에 다양한 운동이 조화되어야 한다. 운동세력 보유에 있어서, 학생들의 열망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실행할 능력 또한 있기에 출마했다. 학우들을 위해 노력할 것인데 인파라줄리 없다. 동국인의 지지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동학의 투명성으로 행정구조의 틀을 개선할 것이며 모던의 화합, 조화의 화염사상에 입각해서 전진할 것이다. (기록·정리 취재부)

◆특별만필

상실의 계절



김락근

세기말이라서 그런가. 짐짐이 불비고 예언서가 불타나게 팔린다. 무당이 한국정치를 예언하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 95년의 겨울은 아무래도 더 추울 것 같다. 이시대 한국민은 집단 최면에 걸린 것인가. 도저히 이성으로는 판단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선 약취가 나고, TV에서는 과거 정권의 추한 아욕이 날아뿔겨지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 이 엄청난 상실의 계절.

이달을 높이보다 유치한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 아비하고 구역질 나는 정권탈취, 돈으로 맺어진 권력과 재벌, 예상은 했지만 막상 사실이어나 너무 허탈하다. 마치 배우자의 부정을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막상 현실을 확인했을때의 분노와 배신감 같은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을 누가 위로하겠는가. 누가 그 분노를 씻어줄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아무리 살펴봐도 백성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다. 모두가 상처를 입고 모두가 죄를 지었다. 고백과 사죄만 남았다. 성한 사람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

이성이 비틀거리면 감성이 활개를 친다. 실적이 통하지 않으면 유행이 판을 친다. 실용이 제 역할을 못하면 미신이 득세한다. 예라 모르겠다. 필테로 피라. 지금 이땅엔 허무주의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 그러나 나라보다 우리 마을을, 우리마을을 보다 내 가족을 챙긴다. 사회를 지탱하는 공동선이 붕괴되면 국도의 이기주의가 장악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냉소로 보내는 웃기는 세상.

출몰한 전직대통령을 한분도 모시지 못한 나라의 불행, 정권이 바뀔때마다 난도질을 당하는 당대의 세대들, 이 악순환에 살맛을 잃어가는 국민들,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단연하건대 정치인의 잘못이다. 소위 지도자란 사람들의 잘못이다. 이제 우리들은 그 누구도 안 믿는다. 정권마다 그렇게 수없이 외쳤던 정의사회! 그러면 서 짓밟은 정의,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다.

과하면 또다시 비극이 시작된다. 정치인들은 고백하라. 우리모두 잘못했다고. 정치가 더럽다고 정치자를 죽일 순 없다. 그러나 그대를 백성에게 고백하라.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려던 면죄회계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 그러면 혹시 아는가. 백성들이 그대를 눈물을 닦아줄지.

한국전집기자회 회장

한독약품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미래를 바꾸겠습니다

HAN/DOK

새로운 로고의 의미  
이제까지 HAN/DOK은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행동양식을 의미하며 HAN/DOK을 연결하는 국산은 태국명인 양의 조화를 통해 합작법인 HAN/DOK을 탄생시켰고 그 과정에서 양사의 신뢰와 협력을 담고 있다. 또한 본지에 서용된 국산은 건강 생명의 향연이라는 의미로, 국산에 사용된 향신료 무한한 잠재력과 더불어 신뢰와 정직성을 추구하는 한독약품의 기업정신을 의미한다

이사장	신수길	경제학	주임	김재우	농학
차장	문준연	경영학	주임	우성환	한문학
차장	배용환	체육교육학	사원	고영국	체육교육학
차장	정용배	법학	사원	권대일	한문학
과장	이상규	화학	사원	김민성	무역학
과장	정장식	농학	사원	김병곤	한국사(대학원)
과장	박종해	체육교육학	사원	서현권	식품공학
대리	오종택	불교학	사원	양성배	국문학

당신의 자랑스런 선배들이 한독약품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한독약품 한독건강 한국롯데셀

대표전화 ☎(02)527-5114

시민과 함께 / 고객과 함께 / 세계와 함께

### 문학단신

◇21세기의 대학과 지적재산 토론회...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 '21세기의 대학과 지적재산'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황중환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이사장은 '대학의 지적재산 관리 현황과 과제', 고려대 조중호 전산학과 교수와 연세대 정병수 기획처장이 각각 '교수 및 학생의 연구성과와 지적 재산권' '지적재산 관리를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토론 진행.

◇안토니오 그라시와 단종호...안토니오 그라시 사상의 정점을 더욱 넓은 시야에서 파악하고 이행의 전망이 거부되는 포스트모던한 시대에 그라시를 통한 새로운 이행전망을 모색코자 나온 책.

달위세와 함께 마르크스주의의 새로운 모색으로 각광받던 그라시는 포스트모던한 사상가들에 의해 서서히 밀려나고 있는 인물. 칼보그, 페리 앤더슨이 지은 책으로 도서출판 갈무리 제작, 가격은 1만2천원.

◇채널 '섹스나인' 신인남자배우 공모...두명의 젊은 남자배우를 대학의 끼있는 학생들 중에서 선발 예정.

최초의 멀티미디어프로그래밍을 표방하는 이 영화는 멀티미디어를 이용해 감춰진 사회의 위선을 과감히 벗겨버리는 전파테러리스트들에 관한 이야기.

응모기간은 11월20일까지로 정면사진, 전신사진, 자기소개서 각 1통을 서둘러 응모 필독가 39-1 국제빌딩 701호 '에디션'에 기입번호 보내면 된다.

◇스타-이미자와 기호...학문적인 관점에서 정리하게 스타인상을 분석한 책.

리처드 다이어(영국의 위외 대학 영화학과 교수)가 지은 책으로 한나래에서 출판, 가격은 8천5백원.

◇진철문 종이조각집...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인사동 조형 갤러리에서 전시한다. 본교 미술학과를 5회로 졸업한 진철문씨는 이번이 다섯번째 개인전을 여는 것이다.

### 히포크라테스와 허론 -한약

## 인체기관과 정신시스템 병리현상 다스려 한약 종합성분의 인체 응용 학문이 본초학

### 한의학의 독립성 필요...생약학적 이론 바탕한 처방

강병수  
(한의대 한의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약에는 민간약, 한약, 생약이 있다.

민간약에는 민간에서 이론적 근거 없이 단지 경험에서 쓰는 약을 말하며, 한약이란 기미(氣味=약의 맛과 성질)와 귀경(歸經=인체기관에 특히 작용하는 부위)등 한의학 이론에 의하여 사용되는 약을 말한다. 또한 생약이란 성분이나 약리학적 작용등 현대 약학적 이론에 의하여 쓰여지는 약을 생약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약이란 물질은 같지만 쓰는 이론적 방법에 따라서 민간약, 한약, 생약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생약이라는 것은 경험적 민간약이나 한약에서 얻어진 임상효과와 지식을 갖고 실험적 유효성분을 추출하여 그 약물을 정량화

합, 표준물질시험이나 급성, 아급성 실험을 거쳐 동물실험과 임상실험을 하고 임상효과와 안정성이 증명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상품화하여 환자치료에 응용할 수 있다.

반면에 한약이란 인체의 생리기능을 흥분시켜 온열감을 갖게 하거나 또는 반대로 생리기능을 침정시키고, 방화(放火)하는 반응을 나타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양한 성분의 구성을 갖고 있는 한약은 다양한 인체의 장기와 정신 시스템에 대하여 때로는 어느 장기에 유효하게 나타나는가 하면, 다른 장기에 아무런 반응도 갖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또다른 장기에 대하여는 부작용을 갖는다. 이와 같이 한약이란 현대약품과 같이 유효성분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한약의 다양한 종합성분의 성질을 인체의 여러 기관에 개별적으로

반응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경영, 관리하여 응용하려는 학문이 곧 본초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체의 병적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합리적으로 치료에 대응하기 위하여 약의 성질을 바꾸는 형식으로서 수지(修治=약을 지지고 볶는 방법)를 하거나, 성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합(配合=약을 섞는 방법)을 하거나, 분량을 조절하여 효능을 바꾸는 등 약의 다양한 성질을 이용하는 본초학적 방법은 생약학적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 다시 말해서 한약이란 다양한 여러성분이 잘 조화된 시스템의 여러 효과와 인체의 여러 기관과 정신의 복잡한 시스템에 병리현상과 관계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효능을 통하여 생리기능을 정상으로 회복, 조절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질병치료를 응용하려는 학문이 곧 본초학이다.

본초학의 내용에는 식물, 동물, 광물 등이 있다. 특히 초본, 목본, 식물 및 약 70%이고, 나머지 동물성, 광물성이 각각 반이다. 그러므로 한약의 대부분이 식물로서 약의 근원이 된다는 의미에서 한약을 본초라고 한다.

요즘 한의사와 약사의 한약분장 내용은 한의사가 본초학적 이론에 의하여 쓰는 약은 한약이며, 현대 약리학적 지식없이 한의사의 본초학 이론에 의해서 개발한 이론과 처방을 그대로 임상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라 학문의 도덕성과 실험법에 위반되는 사실로서 그 문제점을 정부당국에 엄중 항의하며, 한의학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 ◇서평 '에코필로소피'

## 기존철학의 인간중심적 규범윤리 반성 생태계 위기진단 철학의 책임 제시

현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문제를 규정하길 우리의 생산과 소비양식에서 회자되기에 아직 서툰 것 같고 그렇다고 잠시라도 잊고 내기에는 그 중요성이 매스컴과 책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너무나 많은 피라피를 달고 다니기에 '아직까지는 같이 다니기가 부족한 그림자'라고 한다면 너무 주관성이 짙은 억측일까? 거북하다는 측면을 두고서는 자연환경의 전지구적 교란현상이 굳이 매스컴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급박한 시점에서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들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인간의 기존사유에서 표출된 솔직하고도 일반적인 감정표현을 놓고 이제서야 와서(?) 한 개인의 도덕성 결여라든지 무책임함으로 들리기에 이 또한 두책 일한 발상인 것 같다. 21세기의 대전환을 앞두고 문명비판적 회의주의와 비합리주의가 '현대의 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보루나 되는 것처럼 기성을 부리는 것도 생태학적 접근에 한해서는 인류종이 자랑하는 이성과 합리성의 밑천부족이 그 이유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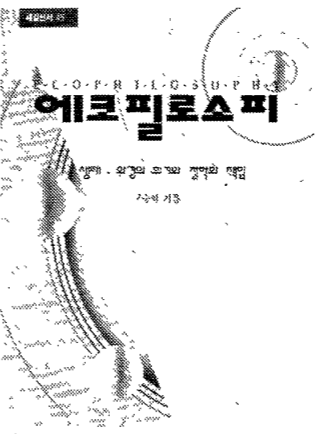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환경문제는 자본주의에 고유한 것도 대공업사회에 고유한 것도 아니다. 위기의 형태는 아날지라도 사회적 문제로서 환경문제는 인류의 문명과 더불어 발생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최초의 문명비판적 환경보존론자인 플라톤도 당대의 환경파괴를 문제삼아 두고 "남은 것은 강토의 양상한 해골뿐이다"라고 탄식을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냐하면 돌림지 모르겠지만 그 기나긴 환경과괴의 인류역사속에서 지금쯤은 적어도 쓰레기의 유령속에서 시달리지 않고 두다리 뒹고 잘 수 있는 이른바 효율, 질량, 재황용의 생산 소비체계를 구비하고 있어야 진보적 역사관에도 합당한 게 아닌가?

독일 다름슈타트 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동국대학교 윤리학과에 재직중인 구승희강사는 최근에 출간된 '에코필로소피'(ECHOPHILOSOPHY)에서 근대와 생태학적 재생산체계의 비진보성의 철학적 원규범으로서 그 주제를 접근에 한해서는 인류종이 자랑하는 이성과 합리성의 밑천부족이 그 이유가 아닐까?

생태철학은 자연존재가 주체이면서 자연의 자연성을 문제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인류종이 존속하느냐 마느냐의 위기속에서 그가 주장하는 철학의 위상은 생태철학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철학의 남은 과제를 반성함으로써 그 책임을 분명히 하고 철학의 총체성으로 개별과학이 이 난국에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암시해주는 데 있다.

칸트와 니체와 하이데거가 이상의 척도를 따르는 '합리적 정신'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키에르케고르와 파스를 필두로해서 우니무노, 벤야민,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등 모더니즘의 시대를 산 철학자들이 현대성을 비판하는데 매달려 왔지만 모두가 이성을 매개로 한 비판이었기에 현대성의 구조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계몽적(미시적)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지적하다.

'에코필로소피'는 전체 2부로 나뉘어져 1부에서는 생태계위기진단과 이성철학의 구조변경이라는 철학의 책임을 제시하고 자연에 대한 생태윤리학과 관계설정과 아울러 에코비윤리학과 지적한다. 서구의 이성철학이 의식적 존재가 주체였다면



◇책 '에코필로소피'  
◇구승희 지음

매체 문제를 바라보는 현대의 생태·환경철학자들 4명-칼 파스, 니체, 한스 요나스, 메레이 복너-의 이론을 소개하고 저자의 생태위기에 대한 적용점을 지적·비판한다.

생태계 위기가 근대과학과 철학의 이성성에 열정의 신물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전 기쁜 숨을 돌리고 있는 지구촌 침대에 눕혀 놓고 이데올로기적 편향을 가지고 메스를 가한다는 것은 현학적 자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지적에서 누구도 강요되고 있듯이 이제 생태윤리의 원칙이라는 거시적 윤리에서 생태계의 복원을 해서는 인간을 위한 윤리보다는 자연을 위한 윤리가 수립되어야 할 시기이다.

김상유  
(문과대 영문과)

### 달 하나 천 경에

## 성의 불평등과 남자속옷 광고



'속옷 만이 아닙니다. 패션입니다' 캠페인 'Let xeS'란 상품명에 남성용 팬티 광고의 일부이다. 이 광고는 내가 출퇴근시 타고 다니는 3호선 지하철 객차 내부에서 쉽게 발견된다.

이 광고문은 남성 팬티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어서 '남자들의 속옷은 패션입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남성 속옷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기본 인식, 즉 겉옷에 가려진 남성 속옷은 치장의 대상이 아니라는 남자들의 일반적 인식을 깨트리는 도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속옷 광고와 다른 점이 눈에 띈다. 어느 여성잡지에서나 발견되는 여자들의 속옷 광고는 광고모델의 나신에 해당 속옷만 입혀져 있다. 그런데 이 남성속옷 광고의 모델은 나신에 팬티만 입은 것이 아니라 벨트도 차고 재킷을 걸치고 있다.

여성의 이상상으로 '여자는 아름다워야 한다'는 신화가 그리스시대 이래 수천년간 동서문화의 공간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 여성들에게는 아름다움을 치장해야 하는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성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 남자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으로 존재해왔음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전내에 입혀진 여성들의 속옷 광고도 그러한 보이기 위한 객체로서의 여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여성을 지배하는 성의 주체로서 여자를 지배하려는 '지배자로서의 남자의 상징'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부분 성생활에서 남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소송당하는 혹은 '오늘날 의무방어전'을 이야기 하는 삼십대의 지친 현대 남성들에게 힘이 되는 광고일까 아니면 그런 남자를 가진 부인들에게 욕시키는 기대를 걸어보게 하는 광고일까? 그런 남자와 여자들만 있다면 광고업자는 성공을 한 것이다. 반면 그런 남자와 여자들은 수동적이며 유희하는 아름다움의 여성상과 공격적인 남자다움의 남성상의 신화를 즉 성생활에 존재해온 남녀 불평등의 그릇된 신화를 여전히 전리로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겠다.

이 광고에 등장하는 또 달리 주목할 만한 것은 상표 이름이다. 상표 'Let xeS'의 'Let'은 '...하자'의 제기형이며 'xeS'는 'Sex'의 철자 순서 뒤바뀐 형태로 행위동사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말로 굳이 풀어쓰자면 '성행위 하자'라는 의미를 가진 상품명이라고 하겠다. 이 상품이름은 성행위를 능동적으로 더 나아가 공격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현실과는 다른 또 다른 그릇된 남성중심의 성 이미지에서 비롯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여성팬티 광고의 상품명으로 이 상품명이 적절치 못하다는 인상을 우리가 받는다면 이는 여전히 성행위와 관련된 남녀 역할에 관한 잘못된 남녀 불평등 신화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는 광고사회이다. 광고들은 그 사회의 지배적인 신화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남녀의 이미지와 관련된 남녀 성차별 혹은 불평등의 신화를 기반으로 한 위의 한 남성속옷 광고는 성생활에서 남녀의 불균형적인 역할만을 조장하고 있다. '잠꼬대 톰워싱턴'은 공격적으로 남성을 유혹하는 인물이 담겨서 나오는 '교수상의 신화'가 지배적인 현실에 교수들의 지면에 성과 관련된 광고를 이야기한 것이 많은 분들에게 불쾌감을 줄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다. 그럼에도 남녀의 성생활에 대한 솔직한 그리고 남녀역할에 대한 그릇된 신화에 대한 담론이 공개적으로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되어 감히 '달하나 천경에' 세속적인 광고를 글감으로 삼아보았다.

조의연 문과대 영어영문과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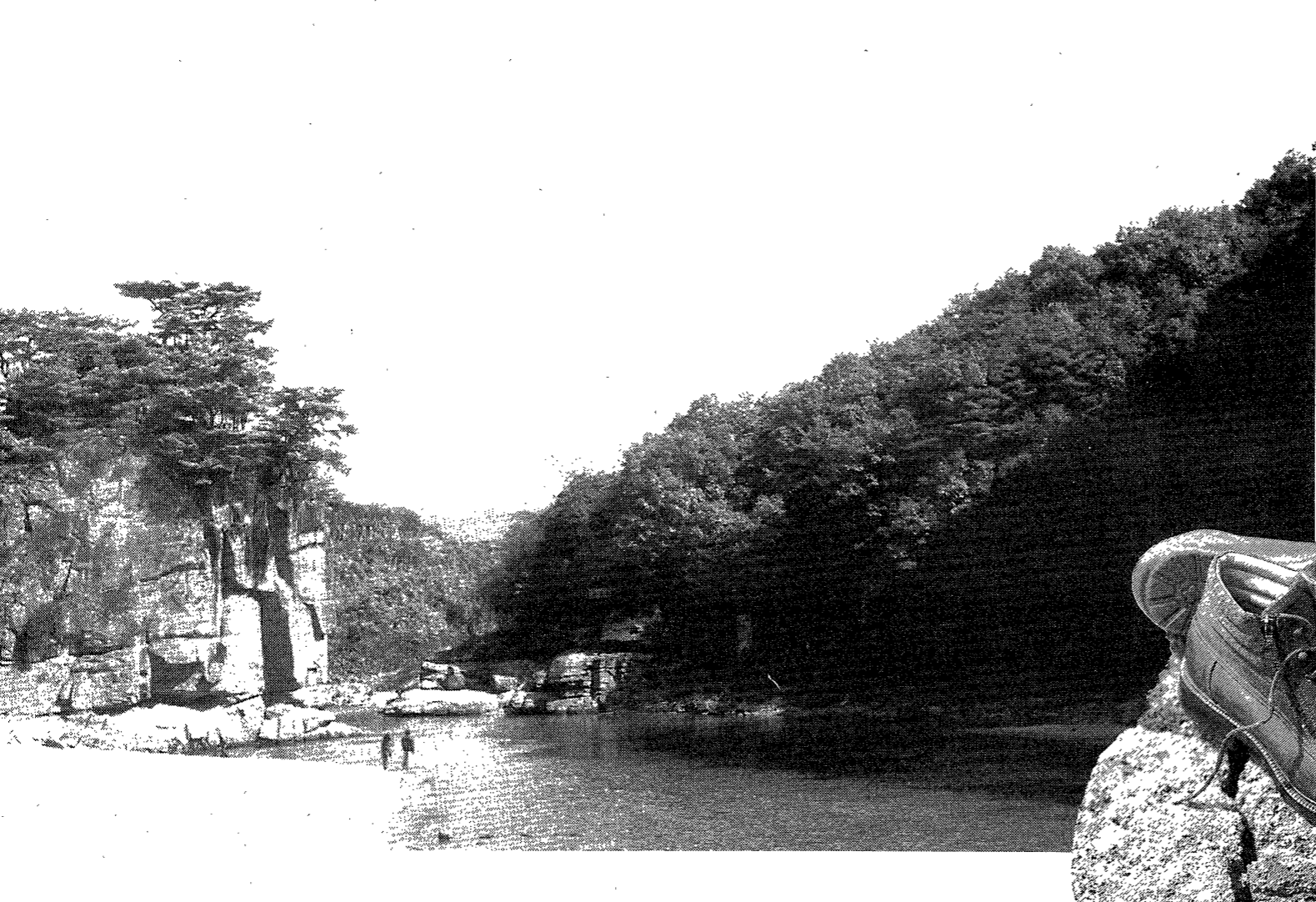
### 버팔로가 함께 하는 자연의 재발견 ④-철원 한탄강

토론펀의 명가  
공감형의 1세대

## 넓은 들판을 거침없이 휘감아돌던 푸른 물줄기로 네 곁에 서리라, 한탄강이여!

철원평야를 감아돌아 임진강과 만나는 은하수처럼 넓고 긴 물줄기, 한탄강. 지금은 분단의 상처와 아픔으로만 기억되는 곳. 그러나 수만년 전, 삶의 터전을 일구던 옛사람의 기상이 세월의 흔적으로 남아 있는 곳 - 푸릇 물줄기 한가운데에 자리한 고석정, '슬픈 역사'는 가슴 깊이 묻고 침묵하라. 그저 찬년만년 변치않는 풍경으로 오가는 이의 발걸음을 묶어두리라'고 가슴으로 노래할 뿐이다. 거친 땅위의 모진 삶을 일구어내며 세 길 여는 사람들에게 하늘과 강과 사람이 한뜻으로 엮여져 우리가 가꾸어야 할 세상을 넉넉한 품으로 감싸안으라고 가르치던 따스한 손길, 한탄강이여.

자연에 향한 젊음의 발길- 버팔로가 함께 합니다.





### 서울단편 영화제 성황리 폐막



수상작 대부분 해외유학과 작품



국내 열악한 현실 드러나

“모든 위대한 감독들은 단편영화에서 시작했다. 단편영화는 거짓말을 늘어놓기에는 너무 짧아서 진실만을 말하기 때문이다” (빌 벤디슨)

한국 내에서 명실상부한 단편영화의 축제를 마련함으로써 참신한 영화작가를 발굴, 지원하고 영화문화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취지로 시작된 상상이 주관하는 서울단편영화제가 변형주의 ‘낮은 목소리’를 개막작으로 하여 11월4일 시작하여, 작년까지 열흘에 걸친 15편의 단편영화제에서 3백여명의 관객이 몰려와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영화제에는 경쟁부문 본선 진출작 15편 말고도 적박한 한국의 단편제작현실에서 사전제작지원제도를 실시하여 제작된 김윤백의 ‘다우징’과 김대현의 ‘안개’를 선보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행사로 영화가 탄생한지 1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세계 영화100년시리즈 18개 편에서 장선우의 ‘맛집’을 포함한 9편이 공개되었다.

제2회 서울단편영화제 공식출품작은 모두 40편이었는데, 이 중에서 15편이 본선에 올랐다. 치열한 경쟁에서 최우수작품상은 미국 콜로라도 대학원에서 영화를 전공한 김본의 ‘모범시민’에 돌아갔다. 김본은 제작동기를 미국이라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여 사는 거대한 나라에서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상대적 무기력감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젊은 비평가상은 미국 Syracuse대학원에서 영화를 전공한 백종학의 ‘달의 이면’에 돌아갔다. 이 작품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에 있어서의 형이상학적 차이나 인종에 있어서의 신체적인 차이에서 오는 오해와 편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복합구성하여 새로운 시각과 영화적 접근을 한 실험영화다.

금관단편영화제에서도 해외 유학파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대상을 받은 이서준과 감독상을 받은 이상민 모두 뉴욕에서 공부중이다.- 이번 서울 단편영화제에서도 극영화 13편중에서 해외유학경력이 있는 사람이 9명이나 된다. 그리고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모범시민’을 감독한 김본은 미국 콜로라도 대학원에서 시나리오와 연출을 전공했고 젊은 비평가상을 받은 ‘달의 이면’을 감독한 백종학과 우수상의 ‘지금의 흥운아, 예술공헌상 ‘오래된 비행기’의 문승욱이 해외에서 영화를 공부하고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유일한 영어제목의 ‘GRAND, FA, THER’을 감독한 김용균이 감독과의 대화에서도 얘기했듯이 ‘국내토종(?)인 셈이다. 폴란드에서 어렵게 현지배우, 스태프, 기자재를 써서 작업했다는 문승욱, 편집비가 없어서 돈 생각때마다 편집을 했다는 흥운아, 3가지를 작업을 가지고 어렵게 돈을 모아 영화를 만든 김본, 모두 어렵게 영화를 만들었지만 제작비 평균 1천5백만원이 넘는 나머지 작품과 비교해서 2백만원에 만들었다는 ‘GRAND, FA, THER’을 김용균의 수상은 과연 어렵고 힘들게 작업하는 독립영화인들에게 힘이 되는것일까 아니면...

(문화부)



### 정재형

(예술대 연영과 교수·영화 평론가)

사회성 범죄에 대한 할리우드의 민감함은 여러 영화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양들의 침묵’을 위시하여 ‘퍼시픽 하이츠’, ‘케이프 피어’, ‘일초적 본능’ 등의 영화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주인공이 모두 ‘사이코’란 점이다. 60년대에 미국영화속의 사이코 전풍은 이미 알프레트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데이빗 핀처라는 낯선 감독에 의해 만들어진 ‘세븐’은 그러한 계보에 있어서 영화를 많이 본 관객들에게 그리 신선한 영화는 아니다. 특히 ‘양들의 침묵’의 많은 부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서 더욱 그렇다. 이 영화는 바로 몇년전 미국을 떠돌아다니던 ‘별자리’ 연쇄 살인범에 대한 소재를 극화한 것이다. 별자리 연쇄 살인범은 자기가 살해할 대상을 범행전에 미리 고지해놓고 그 사람의 별자리에 죽인다는게 특이하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여러 명의 희생자가 나옴에 따라 경찰은 손을 쓸수가 없었고, 현재까지 범인은 못잡고 있다. 단지 수사의 방향이 경찰 혹은 정보로 움직이는 내부의 소행이라고

### 영화의 퍼러독스

### 사이코 주인공 계보의 영화 ‘세븐’

### 세상 어지러움 일곱가지 원초적 악으로 규정 사회구조모순 해결방향 슬그머니 숨겨



추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 이유는 범행이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컴퓨터와 같은 고도의 정보 시스템을 응용하고 있으며, 경찰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 사건의 교훈은 내부의 범죄가 가장 심각하고 크다는 것을 실감케 한다는 것이다.

‘세븐’ 역시 고도의 지능범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영화는 미국의 범죄를 사회적 의미로 확장시키지 않고 개인화시켜 버린다. 할리우드 영화의 대부분이 사회적 현상을 개인화시킨다. 성서에 나오는 일곱가지 죄악을 열거하며 하나씩 사람을 개인시켜 살인을 감행하는 사이코는 그를 쫓는 형사들에게 게임을 해나간다. 사이코가 제시하는 일곱가지 죄악을 보편적인 것이다. 형사들이 그 이유에 대해 판단할 근거는 없다. 그럼 점에서 사이코가 제시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견

해의 인간의 타락상은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공감대와 보편성을 갖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시종 영화를 보게 되는 것은 (혹은 메카니즘이 우리를 유도하는 방향은) 그러한 철학적인 인식이 아니라 범인과 형사의 두뇌싸움을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이다.

또한 감독은 세상의 어지러움을 사이코가 제시한 일곱가지의 원초적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악은 우리들의 삶아가는 모습일 뿐이다. 감독은 멀찌감치서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혼란으로 규정하고, 그 상태를 청소해줄 대리적 의미의 해결사 사이코가 필요하다고 본다. 감독은 그런 점에서 참고도적이며 권력의 존재적이다. 그는 공중체 사회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여타의 비주류적인 행동이나 사고를 청소해야 한다는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다.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악은 영화에서처럼 개인적으로 응징되어야 할 악 대상이라고 보다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며, 따라서 그 해결 방식 역시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사회를 움직여나가는 공권력이나 제도적 모순에 대한 비판으로 그 방향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영화는 바로 그 방향을 슬그머니 숨기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갖고 있다.

▲친구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전태일 열사가 분신에 임박해 남긴 글의 일부본이다. 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후 약 25년의 세월이 흐르고 선진국 문턱을 들어설 만큼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했다. 하지만 전태일을 잊지 못하는 것은 현 사회의 노동자 생활이 여전히 그대로인 것을 나타내 준다. ▲11월 민주노총이 출범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90년 1월 전노협 출범, 91년 10월 ILO 강대국 구성, 93년 6월 전노대를 거치면서 범학계 산별노조를 주장하고 진정 노동자의 조직으로 건설되어 질 것을 다짐했다. 민주노총 출범은 지역별, 업종별, 그룹별로 제각기 다른 단결의 형태를

### 메아리

### 날 잊지마

취했던 모든 민주노조 세력을 단일한 중앙조직으로 묶어내고 산업별 단일노조를 결성하기 위한 예비단계로 이를 실현할 전국중앙조직을 건설한다는 것에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 건설과정과 함께 정부는 민영화 추진과, 제3차 개인금지, 병형근로제, 근로자 파견법 정례하고 요건의 완화, 전일자 축소등 노동자와 노동운동의 탄압을 더욱 가

속화한 것이 사실이다. 4천만 남한인구중 1천만 노동자가 소수의 권력자와 자본가에 의해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 최근 국민을 경악케 한 노씨와 대자본가 사이의 5천억 비자금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을 다시한번 단결하게 만든다. ▲민주노총(준)은 95년 투쟁과정 속에서 양분수 분신, 한봉노조에 대한 올바른 대처, 지자체 대응, 광주 5·18분쟁등에 대한 움직임이 미비했다는 비판들도 많다. 순태일 열사의 잊지말아 달라는 외로운 외침을 이제는 뒤로하고 단결된 민주노조로 단일한 중앙조직으로서의 민주노총 세움을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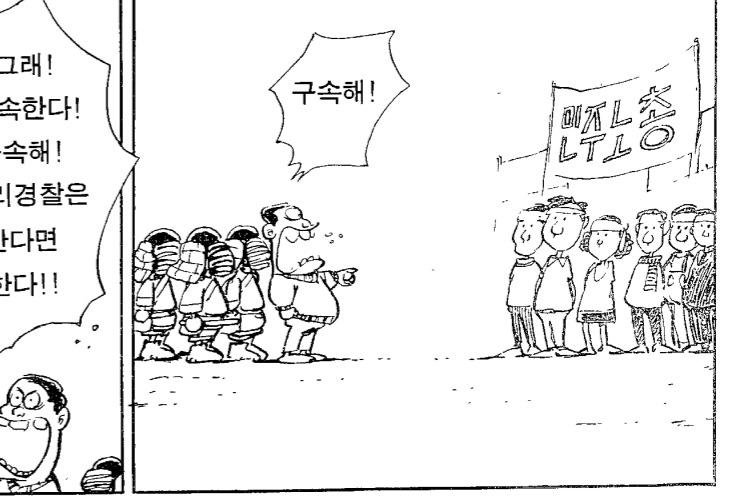
(민)



강성수의 이야기



그래! 구속한다! 구속해! 우리경찰은 한다면 한다!



### ◆해방 50주년기념 연극 두편

### ‘노을에...’위안부할머니 등장해 심각성 부각

### ‘거짓말...’일본연출가협회 이사장이 연출

연출가가 일본연출가협회 이사장인 후지타 아사야라는 사람이다. 지난 91년 일본연출가협회에서 주최한 ‘올해의 여성상’을 수상하기도 한 김학순 할머니는 이번엔 출연한 ‘노을에...’의 연출가 후지타를 만나서 한 말이 있다. “내가 91년 이후로 여러번 증언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로 1백명 이상 모인적이 없어요. 어찌 그리 관심이 없는지...” 후지타씨는 이 말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극의 연출을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김학순 할머니뿐만 아니라 일제 시대의 치욕을 알고있는 우리나라

수 있다는 피임에 빠져 위안부로를 길을 나서고 자신이 노리게 됐다 는 사실을 안 순간 자살을 시도하지만, 발각되어 폭행을 당할 뿐이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돌아간 고향도 냉대와 의심뿐이다.

이 연극의 내용은 이미 죽고, 몇 명 밖에 없는, 하지만 너무 엄청난 숫자에 헤아릴 수 없는 실존 인물들의 실제 이야기다. 게다가 일본 위안부 실제 여부도 모른다는 일본인들에게도 보일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 반응이 끔찍하다.

역사의 뒤안길, 빛이 비칠 수 없는 곳에서 잊혀져가는 사실들을 끌어내는 일, 아니 그보다 평생을 탐구하고 살아온 이들을 빛으로 끌어내는 일의 첫 빛이리라 생각한다. 열사들의 한 걸음이 더 크다는 말이 새삼 떠오른다.

(이유리 기자)

## 세계 일류를 목표로-

### 21세기를 향해 도약합니다. 미래기업 성우가 뛰고 있습니다.

1964년 창업이래 30년, 시멘트에서 용접재료, 운송, 자동차부품 및 안전장치, 건설, 레저산업에 이르기까지 국가 기간산업을 이끌어온 성우그룹- 이제 21세기를 향한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도전과 창조 정신으로 무한가능성의 세계를 향해 뛰고 있는 성우의 미래에 남치는 폐기와 드넓은 이상의 젊은 정신을 초대합니다.

성우그룹: 현대시멘트(주), 현대종합금속(주), 성우종합상운(주), 성우정공(주), (주)성우, 성우종합레저산업(주), 성우종합건설(주), 성우TRW(주)